

폭발직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HIV/AIDS

인도네시아의 경우 표본적인 발생 건수는 적으나 (약 52,000건 '00.6 추정치) 매춘여성의 성병감염율이 30~50%에 달하고 콘돔사용률이 4~12%로 저조하다. 자카르타의 마사지룸 여성의 HIV 감염률이 18%에 달하고 있으며 헌혈자의 감염율이 1998년 이후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급격한 HIV전파의 위협에 대한 경고 사인들로 여겨진다. 또한 마약사용자들간의 HIV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약 13,000건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999년~2000년 3월동안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런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비록 전체 감염인 수는 적으나 상당히 심각한 위험행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매춘여성들은 일주일에 19명의 고객을 상대하고 있으며 마약사용자 중 60~90%는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험한 동성애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마약사용자들의 50~75%는 매춘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현재로는 현저한 발생이 없으나 향후 에이즈 증가의 기폭제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필리핀은 전체 감염건수가 28,000건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취업하였다가 귀국하는 이동노동자의 수가 1천2백만에 달하고 있어 이들을 통한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보고된 수의 1/3은 이러한 이동노동인구에 의한 감염이다.

베트남의 경우 약 100,000건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길거리 매춘여성의 16~25%가 마약을 주사하고 있고 콘돔사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마약사용자 중에도 성을 사거나 (20~25%), 성을 파는 경우가 많으며 베트남의 일부 도시에

서는 마약사용자의 60%가 HIV 감염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마약사용자나 동성애자와 같은 위험집단은 자체 내에서 스스로 에이즈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정부가 에이즈 예방활동을 태만시 하고 있다.

1백만 건의 감염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태국의 경우, 동성애자들이 매춘여성과 성접촉을 갖고 있으며 콘돔사용이 저조하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매춘여성의 콘돔사용률이 90%에 달하고 있으며 안정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캄보디아는 23,000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동성매춘 남성의 60%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과도 성관계를 갖고 있고 콘돔 사용률은 50%이하이다. 이 집단의 HIV 감염률의 15%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과 관계를 갖은 매춘여성들을 통해 이성에 집단으로 퍼지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00년 말 390만건의 에이즈감염이 보고되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5년간 위험집단의 80%를 커버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다.

네팔에서는(약 34,000건 추정, '00.3) 1990년대 초 많은 마약사용자가 주사기를 공동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감염률은 매우 저조하였다. 그러나 7년 후인 1990년에 와서는 50%의 마약사용자가 HIV에 감염되었다. 마약사용에 의한 감염은 다른 감염경로보다 전파속도가 훨씬 빨라서 방콕에서는 0%에서 40%로 증가하는데 8개월이 소요되었을 뿐이며 인도에서는 2%에서 80%로 증가하는데 3~4년이 걸렸을 뿐이다. 또한 동성애자와 매춘여성들간의 전파도 남성-부인간의 감염보다 훨씬 빠르다.

중국에서는 사회의 개방, 이동 노동인구의 증가, 성행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감염인 수가 60만에 도달하였고 성병감염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97년에 비해 2배인 860,000건을 기록하였다. (편집실)